

전북대, 호남권 기술사업화 새 지평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출범 세미나 '융합기술경영학과' 신설... 내년 1월 신입생 모집

전북대학교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권대규·이하 MOT사업단)은 10일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호남권 기술사업화 확산과 전북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사업 출범을 본격 알렸다.

이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사업 전환 고부가가치화 실현, DNA 기술 활용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해 기업들이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융합기술을 사업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5년간 국비 24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북테크노파크, 캠퍼스융합기술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남권 최초로 융합기술 사업화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대학원 과정에 '융합기술경영학과'를 신설하고 내년 1월 신입생을 모집해 전일제형과 재직자형으로 운영한다.

산업정보시스템 공학과를 중심으로 경영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가 협동 운영하며, 참여 기관으로 전북테크노

파크, 캠퍼스융합기술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융합기술사업화 혁신 인재양성을 위해 함께한 예정이다.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재직자를 위해 대면 및 비대면 수업을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 장학금 등 다양한 입학 혜택도 주어진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동원 총장, 조재영 산학협력단장, MOT사업 참여교수 등 대학 주요 관계자들과 이종석 산업기술혁신과장, 박경호 기술사업화단장,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 안근의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노상훈 캠퍼스융합기술원 원장, 이종원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신준석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발열체크, 명

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게 이뤄졌다.

이날 협약을 맺은 전북대 MOT사업단과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기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료개혁, 해외진출 등 기업 현장문제해결, ▲융합기술사업화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상호 인력 교류, ▲융합기술 기반 사업화를 위한 산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대규 단장은 "경영과 공학의 통합 연계, 산업계 수요 반영 등을 통해 글로벌 융복합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 지역혁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전주대 LINC+사업단은 2020 산학협력 EXPO 폐막식에서 진행된 4차(SAH) 미래상상대회'에서 우수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전주대 4차 미래상상대회 산학협력 EXPO '우수상'

호남제주권 LINC+사업단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승)은 2020 산학협력 EXPO 폐막식에서 호남제주권 LINC+사업단 연합으로 진행된 4차(SAH) 미래상상대회'가 2년 연속 우수 프로그램상(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4차(SAH) 미래상상대회는 사회(Social), 예술(Art), 인문(Humanities) 분야 전공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상상대회로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발굴해 4차 산업에 대한 대학의 적응력을 기르고 인문·사회·예술분야 전공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회를 맞은 미래상상대회는 호남제주권 LINC+사업단 10개 대학(전주대, 군산대, 목포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호남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전과 청사진 제시 ▲각 대학에서 선발된 우수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공유 ▲인문/사회/예술 분야 학생들의 열악한 취업 여건 개선 및 새로운 분야로의 취·창업 아이디어 제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주승 단장은 "다양한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청사진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지속적인 대회 운영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교자치 워킹그룹 정책제안 발표회 성료

지난 8일 도교육청에서 학교자치 워킹그룹 활동성과 및 정책제안 발표회가 열렸다. 학교자치 워킹그룹이란 교육주체들이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집단으로 2020년에는 3개가 운영됐다.

이날 발표회는 양항릉(전주덕일중) 교장의 '코로나19, 학교, 학교자치'라는 주제로 시작됐다. 양항릉 교장은 코로나19는 지금까지의 학교와 교육청의 문화와 정책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을 생각하게 하고 있고 그 기준은 '사회구성원의 공동관심사 공유'와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워킹그룹의 정책제안은 학생자치회 운영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안, '학생 및 학부모 동아리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제안, '물린카드 사용에 관한 제안' 등이다.

각 그룹의 정책제안은 교육청 업무 담당자들과의 토론으로 검토, 수정해 학교 지원을 위해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발표회는 코로나19에 따라 교육청 정책담당자들과 최소한의 그룹 구성원들만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에도 4개의 워킹그룹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지난 8일 도교육청에서 학교자치 워킹그룹 활동성과 및 정책제안 발표회가 열렸다.

특수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모색

오늘 진로전담교사간 소통·협력 통해 운영 사례 나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특수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1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 함께 가는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9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운영 사례를 나누고 장애학생 직업탐색, 생애주기적 진로 설계, 일자리 사업 등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관 내 장애 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생, 특수학교(급) 중증장애학생 직업교육, 진로·직업교육 교사 동아리 운영, 장애학생 직업 관계기관 협업 운영, 장애인식개

선과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번 운영 사례 나눔에서는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간 소통, 협력을 통해 진로전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2021년도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행복한 특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전주대 출신 이승준 대령, 육군 준장 진급

전주대 출신 이승준(상업교육과 88학번)이 육군 준장으로 진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주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장군 인사명령에 의거 이승준 동문이 육군 준장으로 승진한다.

이승준 동문은 전주대가 배출한 두 번째 장성이다. 이승준 동문은 학사 19기로 육군 소위에 임관해 2군단 작전계획과장, 21사단 작전참모, 2사단 17연대장 27사단 참모장을 거쳐 현재는 2군단 작전처장으로 보임 중이다.

이승준 준장(예정)은 "전주대 구성원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전주공고, 공무원 22명 합격

전주공업고등학교(교장 윤홍진)는 전북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22명(재학생 13명, 졸업생 9명)이 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전주공고는 지난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무원 6명, 전라북도 지방직 공무원 6명,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22명,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17명, 부서관 34명 등 총 148명의 공무원을 배출했다. /정은성 기자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 '우수기관'

산학협력 EXPO 성공 공로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의회(회장 주승)는 2020 산학협력 EXPO 성공 개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로 부터 우수 참여기관 표창(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7월 출범, 드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드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협의회는 지난 12월 3일 20개 대학 27개 팀이 참가하는 제1회 한국대학드론스포츠대회를 전주대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으로 연기, 드론를 래쉬 캠퍼스 리그를 시범 개최했다.

축소된 경기 규모에도 불구하고 드론를래쉬 캠퍼스 리그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주승 회장은 "코로나19로 드론스포츠 대회를 축소해 진행했지만 한국대학드론스포츠대회의 출발을 알리는 시작점이라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2021년에는 더 내실 있게 준비해 성공적인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여름,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으로 오세요!

순창 강천산으로 오세요!

순창 강천산으로 오세요!